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35-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퀴어 축제 여론 및 퀴어 콘텐츠에 대한 인식

2023. 06. 21.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퀴어 축제 찬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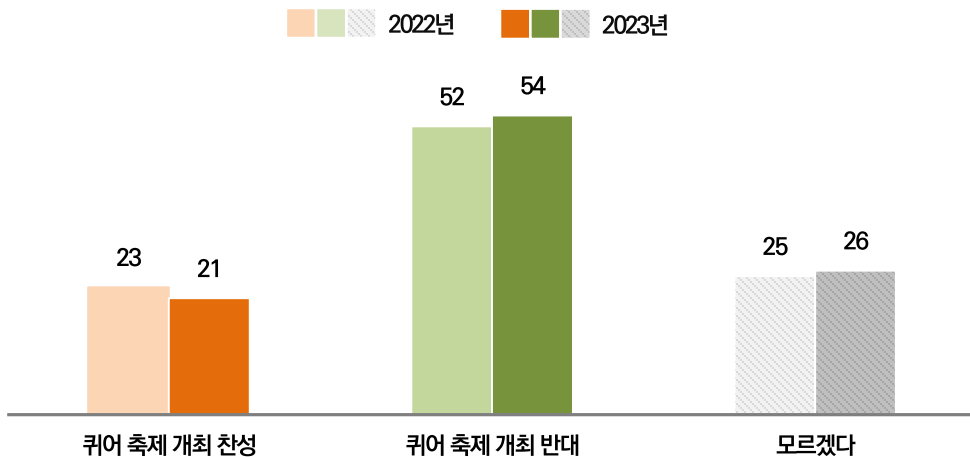
퀴어 축제 개최 반대 54%, 지난해에 이어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전체기간 6월 22일 ~ 7월 9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7월 1일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를 앞둔 지난 6월 9일 ~ 12일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가 퀴어 축제 개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축제 개최에 찬성하는 사람은 21%, 모르겠다는 사람은 26%이다. 지난 해 퀴어문화축제를 앞둔 시점에 진행한 조사 결과(개최 반대 52%, 개최 찬성 23%)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은 없이, 개최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 세대에서 축제 개최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특히 보수층(70%), 개신교 신자(76%)의 반대 의견이 높다. 진보층에서도 개최 반대 의견(42%)이 찬성 의견(34%)보다 8%포인트 높다.

퀴어 축제, 지난해에 이어 개최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

(단위 : %)



질문: 귀하는 퀴어(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퀴어 축제 개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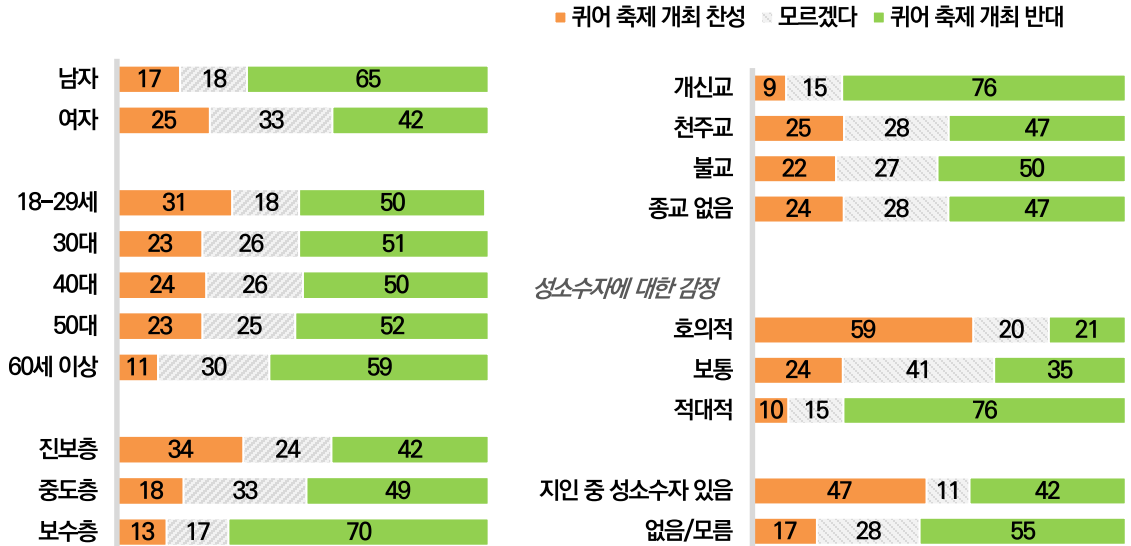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07. 01. ~ 04. //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 세대에서 퀴어 축제 개최 반대 의견이 과반, 보수층과 개신교 신자는 70% 이상이 개최에 반대

(단위 : %)



질문: 귀하는 퀴어(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퀴어 축제 개최 찬반

비고: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 레즈비언(여자 동성애자), 게이(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로 묻고, 각 응답을 점수로 환산함(①매우 적대적, ②적대적인 편, ③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다 ④ 호의적인 편, ⑤ 매우 호의적)
호의적인 집단(평균 > 3), 중간 집단(평균=3), 적대적인 집단(평균 < 3)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퀴어 축제의 성격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 59%,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24%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비전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만이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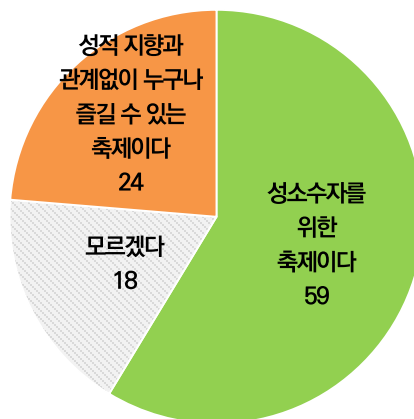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퀴어 축제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가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라고 답했다.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인 24%이다. 국민 다수는 퀴어 축제를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닫혀 있는 축제로 인식하고 있다.

퀴어 축제 개최에 대한 찬반 여론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대에서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라는 인식이 과반 이상이다. 특히 보수층(74%), 개신교 신자(76%),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72%)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퀴어 축제 개최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는 67%가, 성소수자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의 62%가 ‘퀴어 축제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인식해 전체 여론과 차이를 보인다.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 59%,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24%

(단위 : %)

퀴어 축제는...



질문: 귀하는 퀴어(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퀴어 축제의 성격

비고: 이념성향 '모름' 응답 제외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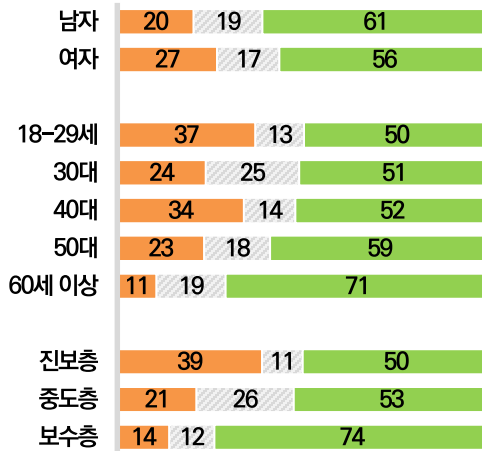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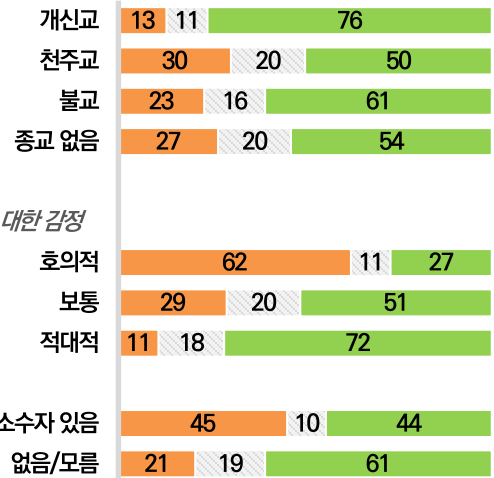
60세 이상, 보수층, 개신교 신자는 70% 이상이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로 인식
 퀴어 축제 개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67%가 '퀴어 축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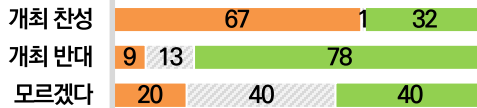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 모르겠다 ■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퀴어 축제 개최 찬반



질문: 귀하는 퀴어(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퀴어 축제의 성격

비고: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 레즈비언(여자 동성애자), 게이(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로 묻고, 각 응답을 점수로 환산함(①매우 적대적, ②적대적인 편, ③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다 ④ 호의적인 편, ⑤ 매우 호의적)
 호의적인 집단(평균 > 3), 중간 집단(평균=3), 적대적인 집단(평균 < 3)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퀴어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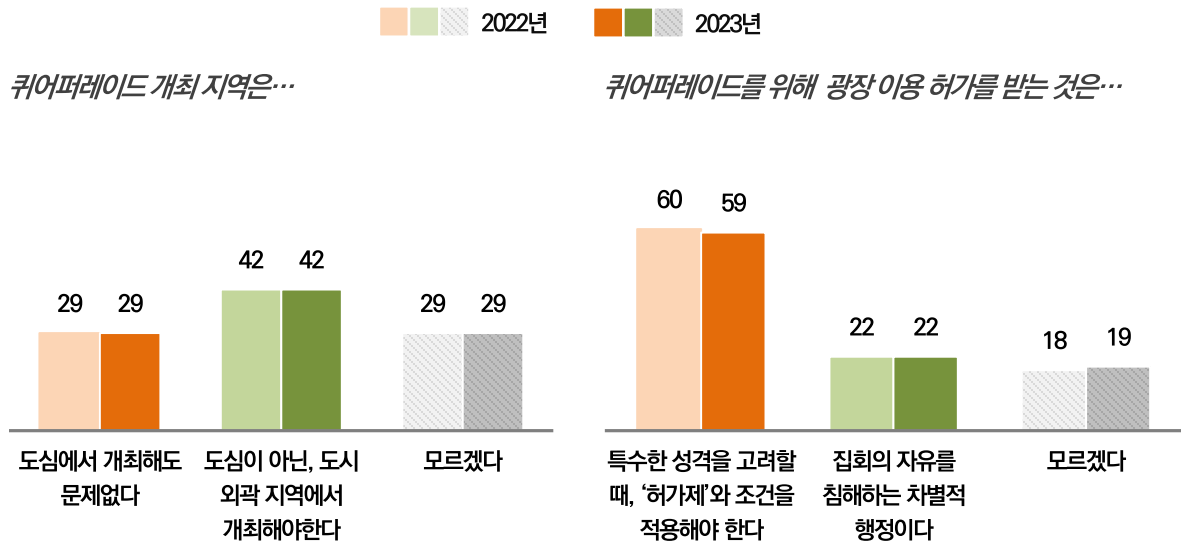
퀴어퍼레이드는 도시 외곽 지역에서, 광장 사용 시 '허가제'와 조건 적용 필요 의견 다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애초 7월 1일에 서울광장에서 제24회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독교계인 CTS문화재단이 같은 날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는 '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공익 목적 행사나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등을 우선 개최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였다. 이에 올해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15년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곳(을지로)에서 열린다.

퀴어퍼레이드의 개최 장소 및 광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여론을 확인해 본 결과, 퀴어퍼레이드의 개최 지역에 대해서는 42%가 '도심이 아닌, 도시 외곽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답해 '도심에서 개최해도 문제없다'는 의견(29%)을 앞선다. 퀴어퍼레이드를 위한 광장 이용 허가에 대해서도 59%가 '퀴어퍼레이드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허가제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는 의견(22%)을 두 배 이상 앞선다. 모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퀴어 축제는 도시 외곽 지역에서 개최, 광장 사용 '허가제'와 조건 적용 필요 의견 다수
지난해 조사 대비 여론 변동 없어

(단위 : %)



질문: 귀하는 퀴어(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퀴어퍼레이드의 개최 지역과 광장 사용 허가제 적용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07. 01. ~ 04. //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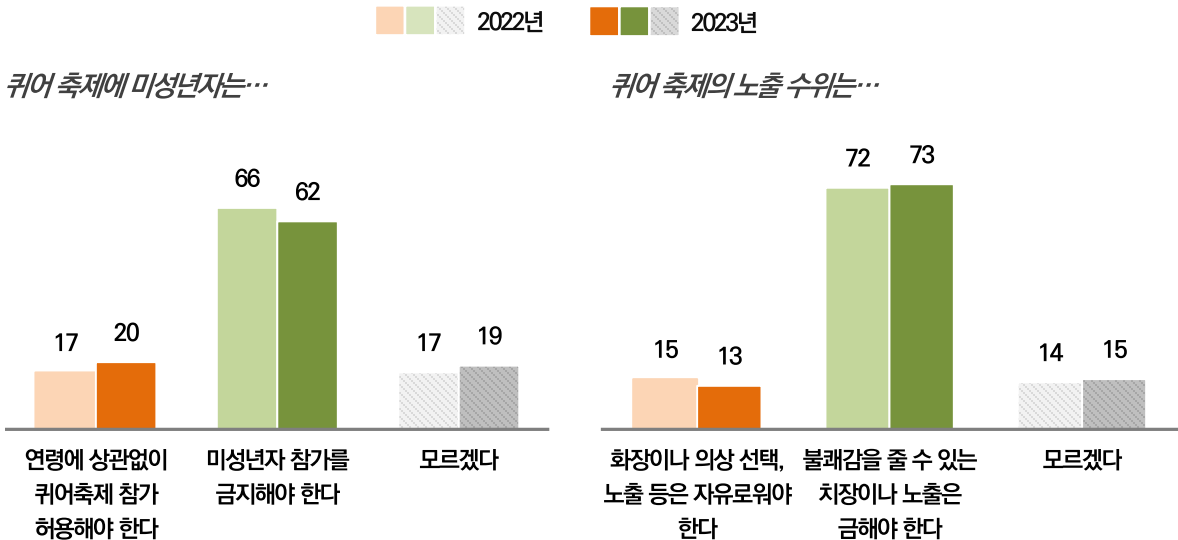
퀴어 축제에 미성년자는 참가 금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이나 노출도 금지 의견 우세

퀴어 축제 미성년자 참여 제한 및 치장·노출에 대한 여론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퀴어 축제에 미성년자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해, '연령에 상관없이 퀴어축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20%)보다 높다. 노출 수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이나 노출은 금해야 한다'는 의견(73%)이 '화장이나 의상 선택, 노출 등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13%)을 크게 앞선다.

퀴어 축제 개최에 찬성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퀴어퍼레이드의 도심 개최를 지지하고, 연령 제한 없이 퀴어 축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하지만 치장·노출 수위에 대해서만큼은 전체 여론과 비슷하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퀴어 축제에 미성년자는 참가 금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이나 노출도 금지 의견 우세 지난해 조사 결과와 큰 변화 없어

(단위 : %)



질문: 귀하는 퀴어(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퀴어 축제 미성년자 참가 제한 및 치장·노출 수위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07. 01. ~ 04. //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퀴어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

(단위 : %)

	사례수 (명)	개최 지역		광장 허가제		참가 연령		치장이나 노출	
		도시 외곽 개최	도시 내 개최	허가제 적용 필요	차별 행정	미성년 참가 연령 제한 금지해야	없어야	불쾌감을 주는 치장, 노출 금지	치장, 의상, 노출 자유
전체	(1,000)	42	29	59	22	62	20	73	13
성별									
남자	(496)	48	25	61	22	62	18	71	13
여자	(504)	35	34	57	23	62	21	74	12
연령									
18-29세	(166)	36	42	52	33	55	32	76	12
30대	(151)	36	26	55	18	61	17	69	15
40대	(181)	37	36	59	26	61	21	69	16
50대	(194)	41	32	58	25	59	24	71	16
60세 이상	(308)	51	18	65	15	69	11	76	7
이념성향									
진보층	(275)	29	49	49	38	47	37	70	17
중도층	(346)	37	24	56	19	63	14	67	15
보수층	(332)	59	19	73	14	75	13	84	8
종교									
개신교	(195)	57	14	67	19	79	10	80	8
천주교	(97)	35	34	62	23	65	20	68	19
불교	(180)	41	33	61	18	58	22	74	14
종교 없음	(501)	38	34	55	25	56	22	71	13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호의적	(109)	21	64	40	44	27	53	59	27
중간	(399)	27	38	51	26	55	23	69	13
적대적	(493)	58	15	69	15	75	10	78	9
지인 중 성소수자 유무									
있음	(123)	28	50	48	39	39	47	68	21
없음/모름	(877)	44	26	60	20	65	16	73	11
퀴어 축제 개최 찬반									
개최 찬성	(209)	13	83	38	58	30	63	60	35
개최 반대	(535)	64	10	76	11	82	6	85	6
모르겠다	(256)	18	27	39	18	45	13	56	7

질문: 귀하는 퀴어(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개최 지역, 광장 허가제, 참가 연령, 치장과 노출에 대한 입장

비고: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 레즈비언(여자 동성애자), 게이(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로 묻고, 각 응답을 점수로 환산함 ①매우 적대적, ②적대적인 편, ③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다 ④ 호의적인 편, ⑤ 매우 호의적

호의적인 집단(평균 > 3), 중간 집단(평균=3), 적대적인 집단(평균 < 3)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4. 퀴어 콘텐츠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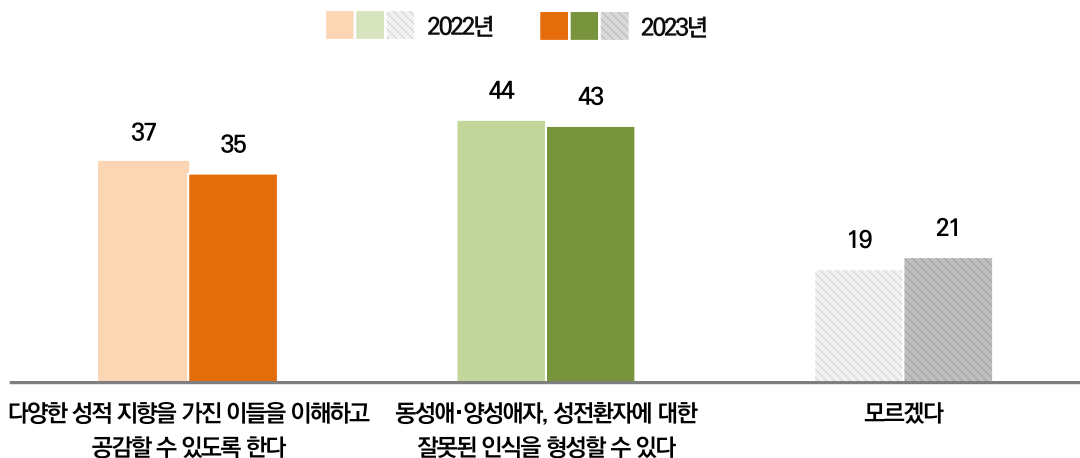
퀴어 관련 콘텐츠,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43%

최근 다양한 퀴어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초 나온 BL(Boys Love, 남성 동성애 로맨스) 드라마 ‘시맨틱 에러’는 호평 속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메리 퀴어’, ‘남의 연애’, ‘좋아하면 울리는 짹! 짹!’ 등 퀴어 예능도 지난해부터 잇달아 방영되고 있다. 성적 지향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같이 고민할 만한 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전통적인 성윤리규범을 파괴하고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반대의견도 높다.

퀴어 콘텐츠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본 결과, 43%가 ‘퀴어 콘텐츠가 동성애·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퀴어 콘텐츠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35%)보다 8%포인트 높은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는 주로 남성(50%), 보수층(56%), 개신교 신자(63%)에서 높은 반면, 공감 의견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74%),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55%), 진보층(51%)에서 높다.

퀴어 관련 콘텐츠,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43%

(단위 : %)



질문: 귀하는 퀴어 관련 콘텐츠(예능,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도서 등)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07. 01. ~ 04. // 2023. 06. 0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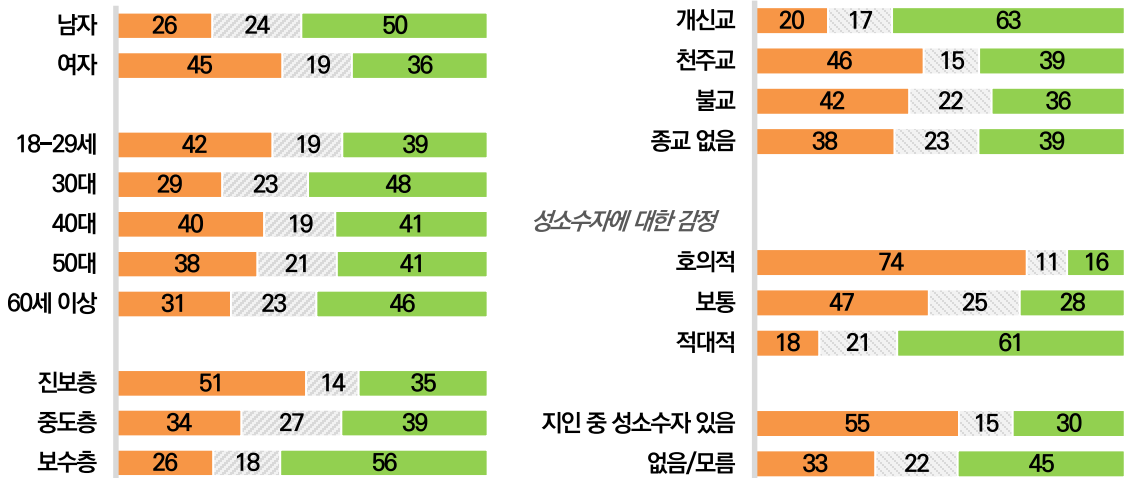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수층과 개신교 신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 효과 우려해

진보층과 성소수자 지인 있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퀴어 콘텐츠의 긍정적 기능에 공감

(단위 : %)

■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 이해·공감시켜 줘 ■ 모르겠다 ■ 동성애·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형성 우려



질문: 귀하는 퀴어 관련 콘텐츠(예능,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도서 등)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비교: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 레즈비언(여자 동성애자), 게이(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로 묻고, 각 응답을 점수로 환산함(①매우 적대적, ②적대적인 편, ③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다 ④ 호의적인 편, ⑤ 매우 호의적)
호의적인 집단(평균 > 3), 중간 집단(평균=3), 적대적인 집단(평균 < 3)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06. 0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6월 기준 전국 88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431명, 조사참여 1,32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5%, 참여대비 75.3%)
조사일시	• 2023년 6월 9일 ~ 6월 1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